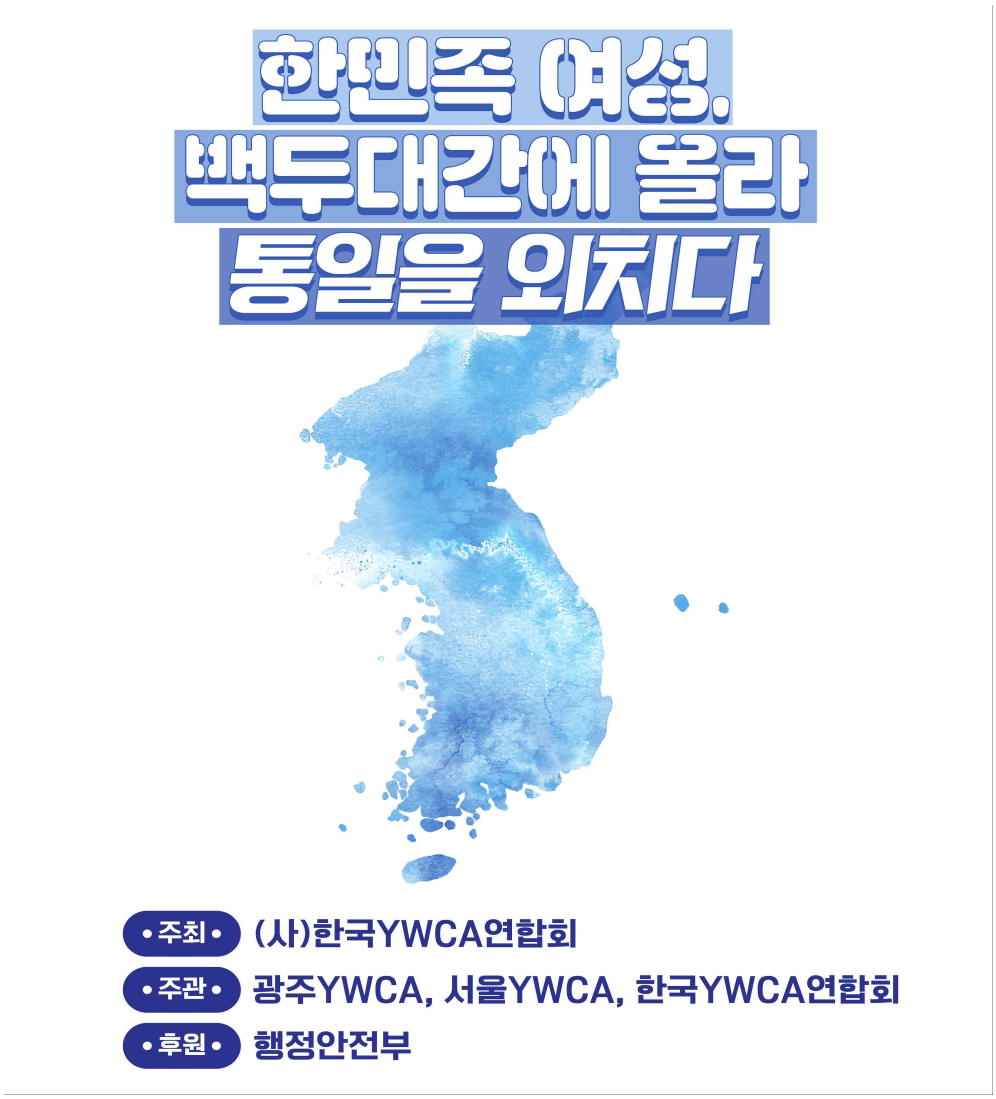
2019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태백편

제 3차 길 위의 평화포럼



일정 | 2019년 6월 20일(목) 오후2시

장소 | 한국YWCA연합회 강당

2019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백편
길 위의 평화포럼

○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후2시

○ 장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

○ 사회: 박영순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 순서

시간	내용
14:00~14:20 (20분)	**한국YWCA역사관 '이제' 관람** 최만자 (한국YWCA연합회 전 실행위원)
14:20~14:30 (10분)	**인사말 및 강사 소개** 박영순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14:30~15:20 (55분)	**강의「북한청년(8090세대)의 생활과 의식」** 김은주(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15:20~15:50 (10분)	질의 응답
15:50~16:00 (10분)	휴식
16:00~16:30 (30분)	모듬별 토론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 총괄부장)
16:30~16:50 (25분)	전체 발표
16:50-17:00 (10분)	평화의 노래 / 마무리

북한청년(8090세대)의 생활과 의식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한국YWCA연합회 미디어소통위원장
동일부 동일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동일 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1

시작하며

"어디서나 청춘들의 삶은 역동적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과도 같다. 동토의 땅, 북한에 사는 청춘들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고 평양에 사는 아이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다."

2-30대 남녀 10명(남녀 각각5명씩)
일명 장마당세대 혹은8090세대
김정은 시대의 동반자

2

평양, 배급은 아직도.. 투 잡(two job)

- 한 달을 보름씩 갈라 가지고 상순 하순으로 갈라서 줍니다. 타줘야 잡곡을 한 20프로 주고 80프로 쌀 줄 때도 있고 5~6월에 곡식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감자랑 나올 때 그때는 5:5로 줄 때도 있고. 일 다니는 사람은 사회생활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700g, 그 다음에 부양 300g, 어린애는 400g, 중학교 학생은 500g.

- 월급은 주죠. 제 월급은 전 3500원이었어요, 북한돈. 쌀 1킬로. 투잡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한 달을 살려면 나가서 일하는 거 외에 항상 다른 실제로 돈벌이 수단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83대신 투잡을 하죠.

3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

- 북한에 있는 성 중앙기관 모두가 다 평양에 배치돼 있는데 성 중앙기관 다니는 사람들은 모조리 아랫단위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국의 뇌물이 다 평양시로 집중이 되는데 그 윗대가리들이 다 거기서 모여 사니까 평양시는 아무래도 잘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제 기억엔 아마도 평성 사람들의 20% 정도가 아마도 2만 달러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국 돈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북한에선 잘사는 수준이거든요. 한 마디로 여기하고 물가가 8:1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만 달러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면 1억 6천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4

평양과 지방, 하늘과 땅 차이

- 몰랐어요.....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옛날영화 이럼게 별난 누더기 같은 수건 쓰고... 어머 진짜 이럼게 사는 데도 있구나, 봤어요... 어머 진짜 무슨 옛날 구석기 시대에서 그런것 같은걸 느꼈어요.

- 힘들진 않았어요.... 배급도 그때는 나왔고 블도 전기블도 잘 오고 그래서 사실 북한에 블이 안 온다? 이러면 약간 저는 제가 체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지방에 갔댔거든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란 걸 그때 느낀것 같아요. 아진짜 우리 행복한데 살구나 느끼고. 지방은 진짜 제가 느낀건 1930년도? 40년도? 그정도의 생활 수준? 진짜 너무 처참하고 그래서

5

대담한 자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강조하는 북한사회에서 자유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에선 당과 수령과 국가를 위해선 개인의 자유는 유보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억압되어야 하는 악덕인 셈이다. 그런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8090세대들은 대담하게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6

자유의 크기= 돈/권력의 크기

- 고딩시절 집단결석과 학내시위를 주도하는 등 동토의 땅 북한에서 대담한 반란을 일으켰다. 컴퓨터 게임으로 도박도 하고 불법 노래방도 가보고 중앙청년회관에 나가 춤도 추고 이성친구도 사귀었다. 최근 북한에는 유료 사격장이 생겼다. 도시의 반항아들은 위험이 수반되는 대담한 자유를 즐긴다. 반면 도시의 전형적인 모범생들은 안전한 자유를 즐긴다.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관에 가서 인도영화를 관람하고 워터파크에 가서 수영을 즐긴다.

7

불평등, 여성의 미덕이 되다

이상한 북한판 성별분업

- 엄청 많죠. 남자들은 나가서 이렇게 그냥 직장 곱게 차려 입고 직장 다니면 되지만 여자는 나가서 돈 벌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는 세뇌가 돼서 이게 여자의 삶인가 보다 하고 살죠. 아마 북쪽에 있는 남성분들은 이건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 야 넌 여자라는 게 장마당 안 나가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당연히 내가 여자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여자의 몫이라고 돼 있거든요. 너 여자라는 게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하니? 하면 그걸 아주 그렇지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삶?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 오죽하면 남편보고 낮 전등 불편 정말 남자들한테 붙여주는 강아지 멍멍이 정말 별난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게 사회적으로 흐름이 너무 한 20년간 지속되다 나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나가서 벌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자들도 나가서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당연시가 되니까 자기네가 차별.

8

남녀 간의 교육 불평등 악화

-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다면 장사를 해야지. 편안히 살아야지. 편안하지 않죠. 돈 버는 일이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게 안타까워요. 훌륭한 대학을 다녀가지고 그렇게 장사가 비천한 일인데

- 남자애들은 대부분 중학교까지는(가는데), 여자애들은 별로 관심없다. 그러니까 되게 돈 많은 집에 두 명. 네. 다 안 갔어요. 근처에는 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갈 필요가 있어요? 계속 학교 가서 내라는 것만 많고 뭐 집에 해 줄 사람도 없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집 살림할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엄마 아빠도 와서 집 살림하죠, 여자애들은.

9

꿈 아빠를 닮지 않는거

- 아이 때 어릴 때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교수로 일하셔가지고 어릴 땐 주변 사람들이 박사해라, 박사해라 해서 그냥 박사가 제일 좋은 건가보다 하고 살았으니까 어릴 땐 그러다가 조금 크면서 도1중학교 갈 땐 사실 부모님들이 바라서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들이 거기 갔으면 하고 가라 가라 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서 갔고 15, 16 이럴 때는 대학 선택을 하면서 고민해야 되니까 그때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딱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처럼은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교수의 삶이라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었다 싶어요

10

8090세대의 성공한 삶이란?

- 8090세대들,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있는 집단의 8090세대들은 엘리트코스라고 할 수 있는 인생나침반을 갖고 있다.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23-4세 정도이다. 이때부터 시작하면 4가지 갈래 길이 나온다. 먼저 공히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나 보위부, 보안소에서 5년간 복무하고 입당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법조계로 나가고자 하면, 인민경제대학에 들어가 법관련 공부를 하면 검사가 된다. 두 번째 행정일꾼이 되고자 하면, 입당 후 인민경제대학에서 관련학문을 공부하고 인민위원회로 가고 세 번째 당일꾼이 되려면 당학교나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지도원 등등의 과정을 거쳐 당 비서에 된다. 네 번째 보위부로 진출하려면 보위부정치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과정을 거쳐 단위책임자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각 기관에서 지도자급에 도달하는 나이는 42-3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 젊은 층의 삶의 목표이며 꿈이라고 한다.

11

빈부격차를 만든 화폐개혁

- 북한인민을 평등하게 돈없는 자로 만들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기획되었던 화폐개혁은 오히려 중하위층의 붕괴로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바로 8090세대가 10년 전 화폐개혁을 통해 배운 교훈으로 보인다.

12

주체사상은 옳다

- 주체사상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자주성을 상징하는 인생철학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라는 주체사상의 메시지는 국가적 모순에 대한 저항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북한인민 대상 교양사업에서는 제외되었다.

13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

-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8090세대의 단호했다. 불가능하다. 배급제가 없는 곳에서 성장하였다. 배급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시장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에 의한 생산이 아니라 개인의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시장에 팔기 위한 생산을 하고 있다.

1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그 어디쯤

- 북한의 현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이의 어디쯤에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배급제의 붕괴로 등장한 시장은 북한인민들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일 뿐 타도대상인 자본주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듯하다. 북한의 권력층이나 북한 주민들도 자본주의의 분배 메커니즘인 시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시장은 권력에 기생해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고 배급제가 와해된 상황에서 권력층은 시장에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기형적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형성이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야만적인 자본주의의 길로 걷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 사이의 어디쯤에서 있는 오늘의 북한사회의 모습이다.

15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그 어디쯤

- 북한의 현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이의 어디쯤에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배급제의 붕괴로 등장한 시장은 북한인민들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일 뿐 타도대상인 자본주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듯하다. 북한의 권력층이나 북한 주민들도 자본주의의 분배 메커니즘인 시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시장은 권력에 기생해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고 배급제가 와해된 상황에서 권력층은 시장에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기형적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형성이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야만적인 자본주의의 길로 걷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 사이의 어디쯤에서 있는 오늘의 북한사회의 모습이다.

15

뇌물의 정치경제학

- 뇌물은 세금이 없는 나라 북한에서 일종의 세금과도 같다는 인식들을 공통되게 갖고 있었다. 또한 뇌물에 대해 받는 자도 주는 자도 모두 북한체제의 특성과 취약성에서 야기된 불가피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뇌물은 주는 자들도 받는 자들의 불가피함에 대해 측은지심을 갖고 있었다. 시장활동의 범죄화에 의한 벌금 형태의 뇌물징수는 생산활동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자기검열과정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의 생산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적지 않다.

17

핵개발

- 핵무기는 자랑이고 자긍심의 상징이었다. 그들에게 핵무기는 북한을 미국의 위협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성별이나 학력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었다. 은행거래가 차단되고 근로자외국파견이 봉쇄되면서 평양에서는 굶어죽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제재는 부유한 계층이나 가난한 계층보다는 소액의 투자금을 가지고 시장에 투자하였던 중간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경제봉쇄로 인한 북한주민의 이탈과 불만을 막기 위해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이탈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양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18

북한사회의 변화를 말한다

- 북한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였다. 그래서 남한사회나 서방세계의 언론에서 북한을 비정상국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독재국가이기는 하지만 비정상국가는 아니라고 항변한다. 북한의 대주민상호감시 시스템은 외부세계에서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북한주민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이며 완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완벽한 감시시스템으로 북한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 내부에서의 변화는 불가능하며, 오직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김정은에 의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9

김정은 국무위원장

-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80,90세대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평양과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남녀노소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인 김정일과의 차별화된 정치행보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화정치 혹은 미담정치는 북한주민들로부터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믿음직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김정은에 의해 자행된 공포정치에 대해서는 이는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북한주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옹호하였다.

20

나오며

한 사회의 청년은 그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지만 북한사회의 변화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태 보고자 한다. 분명 그들의 변화는 그들의 부모세대가 살았던 그 때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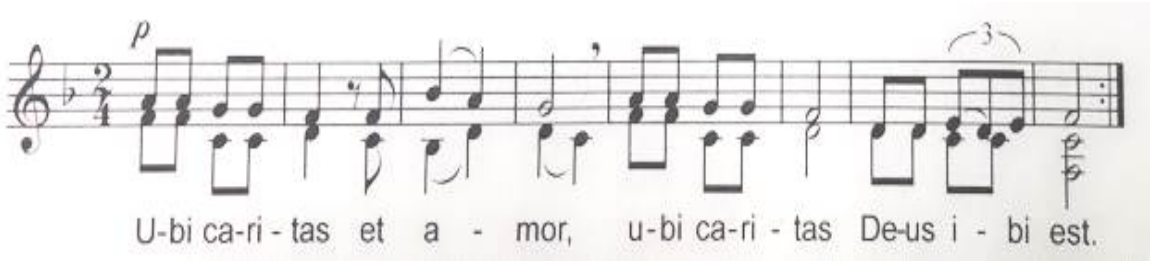
평양에 사는 8090세대들은 시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인생 도전들을 하고 있다. 도전과 좌절,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근력을 키우고 있다. 기득권세력으로 진입하고자 욕망하는 이들도 북한의 변화를 읽고 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서 평양에 사는 8090세대의 꿈과 욕망이 보인다.

〈 토론지 〉
1. 오늘의 강의를 통해 볼 때, 남북사회의 공통점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까? (구체적인 사안들을 예시로 논의)
2. 평화 한반도를 위해 청년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3. 기타

〈평화의 노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Ubi Caritas)



사랑의 나눔 있는-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Ubi ca-ri-tas et a - mor, ubi ca-ri-tas Deus i-bi est.

2019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백편
길 위의 평화포럼

1. **주제**: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를 통한 남북 관계 이해
2. **일정**: 2019년 4월 ~ 9월 3째 목요일 오후2시 (총5회: 4, 5, 6, 7, 9월)
3. **목표**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과 주변국 등에 대한 실제적 이해
   -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 형성
   - 회원YWCA 평화 운동가 양성

4. **포럼단의 역할**
   - 각 지역 회원들의 지속적 만남과 교류
   - 강의 및 개인의 삶과 연관된 대화, 조별 토론을 통한 평화인식 확대
   - 총 5회 중 4회 이상 참석 시 평화순례단으로서 '길 위의 평화 대포럼'(태백산 등반)에 참가

   * 올해는 창립97주년으로, 포럼단을 포함한 97명이 평화순례단으로 구성됨

5. **일정**

	일시	내용	강사
1	4월18일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사회: 장미란 위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	5월16일	북한의 정치 및 권력 관계 (사회: 하은경 위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3	6월20일	북한 청년(8090세대)의 생활과 의식 (사회: 박영순 위원)	김은주 (실행위원,)
4	7월18일	근대사 속 북한의 기독교 (사회: 김혜경 위원)	박혜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원)
5	9월19일	신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시민사회 과제 (사회: 엄에스더 위원)	

*** 길 위의 평화 대포럼 (등정)**
- 일정: 9월30일(월) - 10월 2일(수), 태백산
- 주관: 서울YWCA

[2019 YWCA 평화포럼단]

	지역	구분	이름	비고
1	경기	고양YWCA	윤정애	
2		고양YWCA	김용주	
3		수원YWCA	김경이	
4		안산YWCA	황혜정	
5		안산YWCA	민혜진	
6		안양YWCA	김희정	
7		안양YWCA	김지나	
8		의정부YWCA	김선희	
9		의정부YWCA	이정희	
10	동부	대구YWCA	김정은	
11		마산YWCA	김명자	
12		진해YWCA	윤미자	
13		진주YWCA	정경옥	
14	북부	서울YWCA	양진화	
15		서울YWCA	김재신	
16		원주YWCA	조숙자	
17		인천YWCA	조철숙	
18		인천YWCA	유승분	
19	서부	광주YWCA	김신희	
20		순천YWCA	손모아	
21		목포YWCA	문영심	
22		전주YWCA	최명희	
23	중부	대전YWCA	조정현	
24		세종YWCA	허미정	
25		천안YWCA	박미숙	
26		청주YWCA	김경민	
27		탈북민	김길선	
28			차정희	
29			손춘옥	
30			정진화	
31			원예빈	
32			마순희	
33			조혜리	
34			황재경	
35			엄에스더	
36		한국YWCA연합회	장미란	
37			최수산나	
38			최지영	
39			문윤희	